

코스피 불장에 황제주 ‘역대 최다’... 액면분할 필요성 부각

주당 100만원 넘는 ‘황제주’ 11개
삼성전기·SK스퀘어, 이달 합류
높은 가격에 ETF 등 대체투자 관심



ChatGPT로 생성한 전력기 투자를 고심하는 투자자 이미지.

서울 영등포에서 자영업하는 황모(65)씨는 최근 효성중공업 주식을 사려다 포기했다고 한다. 황씨는 “어웃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성중공업 1주 가격이 400만원에 달해 부담스럽다”며 “대신 이 종목을 담고 있는 ETF(상장지수펀드)를 매수했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8000선에 달하는 등 국내 증시 투자 열기가 뜨겁자 주당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가 11개로 급증했다. 후보군도 다섯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늘고 있다. 황제주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은 평가 차익 확대에 환호하고 있지만, 신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 주 사기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액면분할 기대감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가죽 늘어난 ‘황제주’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주가가 100만원을 넘는 종목은 총 11개로 집계됐다. 이는 코스피 황제주 수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효성중공업(374만5000원), SK하이닉스(181만9000원), 두산(161만4000원), 삼양식품(144만4000원), 고려아연(142만6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141만90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1만6000원), HD현대일렉트릭(117만9000원), SK스퀘어(109만8000원), 태광산업(101만1000원), 삼성전기(101만원)가 현재 100만원을 웃돈 상태다. 이달 코스피가 사상 처음 8000선을 돌

파하는 등 고공행진하면서 이달 들어서만 2개 종목이 황제수에 입성했다.

삼성전기는 지난 13일 102만9000원에 장을 마치며 황제수에 등극했다. 지난달 말 83만2000원이던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24% 급등했다. 1분기 실적기 기대치를 웃돈 가운데 인공지능(AI) 서버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수요 급증 전망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SK하이닉스 최대주주인 SK스퀘어도 이달 6일 108만9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황제수에 올랐다. 반도체 업황 호조 지속 기대감에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덩달아 매수세가 몰렸다.

황제주 후보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증가 기준 100만원에 가장 근접한 종목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로, 지난 15일 증가는 83만4000원이다. LG이노텍 주가도 73만2000원으로 상승했다. SK증권은 지난 13일 LG이노텍 목표가를 100만원으로 올리면서 “북미 고객의 증산 및 기관 업황 호조의 수혜가 기대되며, IT 중대형주 중 멀티플(배수)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했다. 현대차도 로보틱스 지난 15일 장중 사상 처음 77만원을 돌파했다. 최근 유진투자증권은 현대차의 목표가를 100만원으로 제시하면서 “고유가 영향에 따른 하이브리드차(HEV) 수요 증가에 판매 성장세가 지속됐다”고 짚었다. 이밖에 HD현대중공업, 삼성SDI도 증권가 목표가가 최대 100만원을 웃돌아 ‘황제주’ 후보로 꼽힌다.

◆동전의 양면 ‘액면분할’ 할까

시장에서는 액면분할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액면분할은 기존 1주를 여러 주로 나눠 주식을 늘리는

대신 주당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기업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주당 가격이 낮아져 개인 투자자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13~20개 상장사가 액면분할을 실시했다. 올해 들어서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총 10여곳이 액면분할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과거 200만원대 ‘황제주’였지만 지난 2018년 50대1 액면분할을 단행하며 개인 투자자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액면분할이 시행될 경우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으로 인한 유동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주주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특히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2차 상법 개정안도 변수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액면분할로 소액주주 수가 늘어날 경우 경영권 견제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NS 고수익 투자 권유, 사기 의심해야”

금감원 Q&A

핀플루언서 사칭해 투자금 유도
금감원, AI로 불법 리딩방 추적

최근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핀플루언서의 금융 범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AI 기반으로 전환해, 제보와 시장 정보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불법 리딩방과 투자사기 적발에 나선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장 빈번한 수법은 유명 핀플루언서를 사칭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유튜브 채널의 프로필과 로고를 그대로 도용하거나 영상을 편집해 가짜 채널을 만든 뒤, 댓글이나 메시지를 통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채널 댓글에 해당 인물인 것처럼 위장해 투자 앱 설치 링크

나 사이트 주소를 남기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투자사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들은 정식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투자 프로젝트라고 소개하거나, 금융회사 명칭과 로고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제작해 신뢰를 형성합니다. 이후 별도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다른 유튜브 채널을 매입한 뒤 주식 채널로 바꿔 운영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주식과 무관했던 채널에 단기간 수백 개의 영상을 올리고, 특정 종목 분석이나 무료 종목 추천을 내세워 구독자를 모은 뒤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유료 회원 가입이나 1대1 투자 상담을 권유하는데, 이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유튜브나 SNS, 텔레그램에서 원금 보장, 고수익, 비공개 정보 등을 강조하며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SNS에서 ‘투자연구소’, ‘경제TV’, ‘투자자문’ 등의 명칭을 사용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 파인(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업체와 거래해 발생한 피해는 금융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사칭이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허정윤 기자

서학 개미 美주식 보관액 300조 돌파

빅테크 산업 기대감 커진 영향

서학 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300조 원을 넘어섰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2000억1375만달러(약 300조2703억원)로 집계됐다.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정부의 강력한 국내 주식시장 부양 정책에 발맞춰 연초 1674억8000만달러선에서 지난 3월 말 1465억7000만달러까지 떨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증권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 생길도록 하겠다”며 국내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 3월 23일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환류해 장기 투자로 연결할 경우 한시적으로 세계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 시장 복귀계획(RIA)을 출시했다.

같은 달 31일 국회는 서학 개미가 5월 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그러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지난달부터 점차 늘어나더니 지난 11일(2001억4000만달러) 처음으로 2000억달러를 돌파

했고, 지난 12일 1954억달러로 줄었다가 14일 다시 2000억달러선을 넘겼다.

서학 개미가 다시 늘어난 배경으로는 최근 들어 미국 빅테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점이 지목된다. 인공지능(AI) 관련 빅테크 중심의 미국 증시 상승세가 재개되면서 개미들이 다시 미국 시장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15일에는 채권리 급등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며 하락했다.

서학 개미들의 투자 종목도 기술주에 쏠려 있다.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시장 순매수액 1위 종목은 인텔(순매수액 6억4112만달러)이었다. /신하은 기자



전면 개편된 코스콤 ‘CHECK Expert+’(체크 엑스퍼트 플러스)의 히트맵(Heatmap) 화면. /코스콤

코스콤, 금융 데이터 검색·시각화 강화

‘CHECK Expert+’ UI·UX 개편
히트맵·계절성 차트 등 추가

코스콤이 금융 데이터 단말 서비스 ‘CHECK Expert+’(체크 엑스퍼트 플러스)를 전면 개편하며 데이터 분석 편의성 강화에 나섰다.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시각화 기능을 고도화한 데 이어, 채권 데이터 세분화와 신규 콘텐츠 확대를 통해 투자 판단 지원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코스콤이 ‘CHECK Expert+’의 사용자 환경(UI)·사용자경험(UX)을 전면 개편한 신버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금융 데이터의 가독성과 분석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스콤은 기존 환경에 익숙한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신버전 출시 이후 약 3개월간 구버전과 신버전을 함께 운영하는 병행가동 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전환을 지원했다.

새로워진 CHECK Expert+는 평면형 화면 구성(Flat UI)을 적용해 색상 구성은 단순화하고 정보 간 대비를 높여 복잡한 금융 데이터의 가독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장시간 단말기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시각적 피로도를 줄이고 데이터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데이터 더보기’ 기능을 통해 한 화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목조회 히스토리, 메모, 관심등록 기능 등을 추가해 사용자별 정보 관리 편의성도 강화했다.

데이터 시각화 기능도 확대됐다. ‘히트맵(Heatmap)’과 ‘계절성 차트(Seasonality Chart)’를 통해 ETF·지수·테마 등 다양한 시장 데이터를 더욱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히트맵은 ETF·지수·테마 등에 소속된 종목의 등락과 비중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자 커스텀 테마 색상 기능도 추가했다. 계절성 차트는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시기별 시장 흐름과 반복 패턴을 분석할 수 있어 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한 투자 판단 보조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채권 데이터 고도화도 이번 개편의 주요 특징이다. 코스콤은 채권 분류 체계를 기존 125개에서 308개로 세분화해 만기, 발행기관, 신용등급 등 정교한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발행·상환·잔액 추이, 만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 화면과 함께 총 73개의 신규 콘텐츠를 추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